

조국, 靑수석때 다주택 피하러 위장매매 의혹 청문회 혐로 예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청와대 정부수석 재임 당시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의 전 부인에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맹) 활동 관련 이념 논쟁부터 위장매매 등 민감한 쟁점까지 불거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과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11월 27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씨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넘겼다.

2017년 당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지 7개월 여가 지난 때다. 조 후보자의 전 제수인 조모씨는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의 가족과 교류가

친동생 전 부인에 아파트 매매 사노맹 사건 '이념 논쟁'도

있었다. 부인 정 교수는 최근 조모씨와 빌라 임대 매매계약을 맺었다.

해당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빌라 명의가 조모씨로 돼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에는 부인인 정 교수가 임대인, 조모씨가 임차인으로 명시돼 있다.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울산대 조교수로 근무했으나 조 후보자의 주소지는 1999년 10월 통근하기 먼 거리인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한 달만인 11월 부산 경남선경아파트로 석 달 뒤인 2000년 2월에는 다시 서울 송파구의 다른 아파트로 바뀌었다.

이미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 유죄 판결로 각을 세운 야권은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위장거래 의혹 또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오후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놓고 여야 평가 엇갈려

與 “희망찬 미래 그렸다” 野 “말의 성찬으로 끝나”

“비전과 리더십 돋보여” vs “허무한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경축사”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올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일깨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손에 잡힐 듯이 구체적으로 그려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본 경제 보복을 극복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원숙함과 포용력을 과시했다”며 “열강에 휘둘렸던 과거의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흔

들 수 없는 나라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로서의 구체적 현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이 돋보이는 경축사였다. 문 대통령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회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나 흔드는 대한민국이 된 오늘,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광복절 경축사”라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현실 인식은 막연하고 대책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히 짝사랑”이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에 이르는 길은 이미 나와 있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안보를 굳건히 하고,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국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진실을 외면한 말의 성찬으로는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는 결코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말은 자부심을 표현하기에 많은 점에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것 역시 사실”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상이나 정신 승리라 아니다. 실질적인 결과이며 현실성 있는 미래 비전”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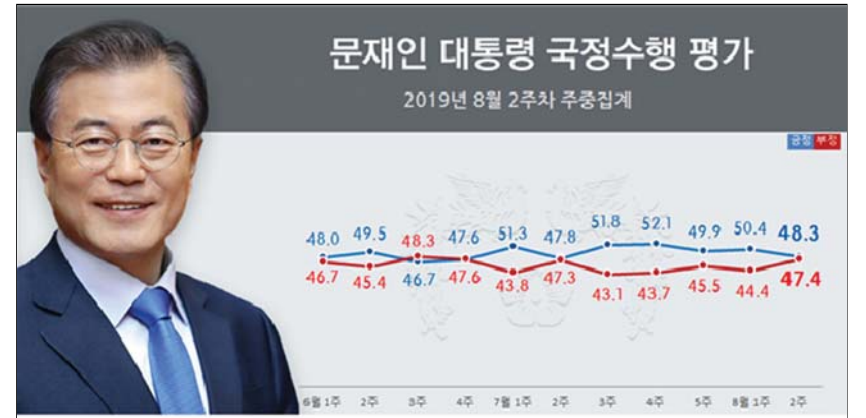
박수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이 힘을 합쳐 일본을 극복하지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 한반도의 생존과 번영, 평화를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밝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책임 경제강국, 평화교량 국가, 평화경제의 비전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는 자강의 길을 모색하면서도 동아시아 연대의 시선을 놓치지 않은 힘 있는 경축사였다”며 “그러나 말이 곧바로 현실이 되지는 않는다. 국가적 현실은 여전히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요구한다”고 평가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자유한국당, 광복절 맞아 유관순 열사기념관 방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15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 열사 기념관 유관순 열사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뢰기관: tbs / 조사기관: 리얼미터 / 총응답률: 전국 성인 1,502명 / 표집오차: 95% 신뢰수준 ± 2.5%p / 응답률: 4.0% / 조사방법: 무선 전화면접 (10%), 무선 (70%), 음성 (20%) / 응답 일자: 2019년 8월 12일(월)~14일(수) REALMETER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8.3% 北미사일·대남 막말에 다시 40%대 리얼미터 여론조사...민주당 40.0% 한국당 29.9%

문재인 대통령의 8월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1%p(포인트) 내린 48.3%를 기록해 한 주 만에 50%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15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119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48.3%(매우 잘함 27.5%, 잘하는 편 20.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0%p 오른 47.4%(매우 잘못함 33.0%, 잘못하는 편 14.4%)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0.9%p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0.9%p 감소한 4.3%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10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11일 북한 외무성의 ‘대남(對南) 막말’ 담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역할을 흉내 내 비하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최근의 금융·경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중도보수층, 충청권과 서울, 부산·울산·경남(PK), 20대와 60대 이상, 40대에서 하락했다. 반면 대구·경북(TK), 30대와 50대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1%p 내린 40.0%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1.2%p 오른 29.9%로 상승하며 30% 선에 육박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63.8%로 지난주보다 0.7%p 소폭 올랐고, 보수층의 한국당 지지율은 59.4%로 지난주보다 0.8%p 하락했다. 핵심이념층의 결집도는 민주당이 4.4%p 앞섰다.

중도층에서는 40.0%가 민주당을, 26.5%가 한국당을 지지해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13.5%p 우세했다.

정의당은 0.2%p 오른 7.2%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0.4%p 오른 5.1%로 5%선을 회복했다.

우리공화당은 0.4%p 하락한 1.7%로 1%대를 기록했고 소속의 원들의 탈당 사태가 있었던 민주평화당은 0.7%p 내린 1.4%를 기록해 창당 이래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5%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1

호남신문 062)229-6000 062)222-5547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